

목어

궁예의 죽음과 역사왜곡

“왕이 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미복(微服) 차림으로 산 속으로 들어갔다. 얼마 안 있어 부양지역 백성들에게 죽었다.” <삼국사기> 궁예의 최후는 이미 그렇게 사료에 나와 있다. 또 다른 사료 <고려사>에는 보리이삭을 훔쳐먹다 부양지역 백성들에게 죽었다고 각색되었으나, 명백한 결론은 부양지역 백성들에 의해 죽었다는 기록이다.

여기에서 역사의 진위 여부를 가리려는 학구적인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시중에 나오는 궁예와 김대통령의 공통점 서른 몇 가지가 회자되는 것을 계기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작자들은 궁예의 죽음을 어떻게 그럴까 고심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고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사료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우리들의 창의적인 상상을 펴 그려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사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상상만으로 그리는 것은 ‘왜곡’에 속한다.



제작자의 상상력만으로 사료를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고쳐라 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판인데, 따지고 보면 궁예의 죽음 표현도 왜곡의 일종이다. 내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만을 시비하는 어리석음과 같다. 역사적 사실을 명백히 왜곡 서술한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등지의 왜곡은 왜 한마디의 소리도 없는 것인가. 내가 하는 왜곡적 상상은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

“궁예는 틀에 맞아 죽는다. 김대통령은...” 이런 따도는 말을 의식해 궁예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왜곡했다면, 이는 정신분석적으로 일차과정 사고체계에 있는 미숙함을 보인 것이다. 일차과정 사고란 비논리적 사고로서 어린이들이나 할 미숙한 사고체계를 말한다. 웃고 말 일이지 그것을 믿고 왜곡하는 일은 더욱 웃음거리가 된다. 궁예와 김대통령은 논리적 것으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바로 보자. 바로 보아야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삼계가 그대로 한마음 뿐이로다”

불기 2545년 하안거 결제법어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結制心出요 解制身出라
解結無慮하면 是眞出家라
결제는 몸이 출가함이고 해제는 마음이 출가함이라. 해제결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출가라. (중략)
그렇다면 땅이 산을 받든 것 같고, 돌이 옥을 머금은 것과 같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그런 진출가(眞出家)의 소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결제철에 잘 참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

年年去來辛巳來
辛巳碧光滿乾坤
優曇華開火裏中
無角石牛眼裏珠
세월이 흘러 신사년에 도래하니
신사년 벽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
우담화는 불 가운데에서 피어나고
뿔없는 석우는 눈 가운데 누워 있도다.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

〔앞 부분 생략〕
남전스님 회상에서 하루는 대중이 동당·서당에서 고양이를 가지고 싸움을 하거나, 남전스님이 이를 보고 마침내 고양이를 잡아먹고 이르되, “대중이 한 마디 잘 일러 얻으면 곧 베지 않겠다.” 대중들이 대답이 없자, 남전스님이 고양이를 두 동강으로 베어버렸다.



劍輪飛處 日月沈輝
寶杖敲時 乾坤失色
같이 나는 곳은 일월도 빛남이 없어져 버리고
보배 주장자를 두드릴 때에는 천지가 빛을 잃어버린다.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지허 스님

〔앞 부분 생략〕
우리가 다 적손인데 서자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우리 이제 어디서나 환귀본처(還歸本處)합시다.



童子行尋千載後
參寥寂寂但清虛
老僧無事臥雲裏
白日青山對結廬
아이가 찾아 나선 지 천년 후에
고요하고 또 고요하여 다만 맑게 비었네.
노승이 일없이 구름 속에 누웠으니
밝은 해는 푸른 산과 토굴을 마주하고 있구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앞 부분 생략〕
우리들의 분상에는 다만 오늘이 있을 뿐 원래 내일은 없으니 내일을 기다리는 자는 미륵부처님이 열반하더라도 머리를 내놓지 못하리라.



靈然不涉去來今
三界都虛一點心
欄外桃花春蝶舞
門前楊柳曉鶯吟
會麼 아
신명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 없으니
삼계가 그대로 한마음 뿐이로다
울 밖에 복사꽃에는 봄나비 춤추고
문 앞에 수양버들에는 아침피리 노래하네
아느냐

木牛飲盡不濕水
나무소가 젖지 않는 물을 다 마셔버렸구나

서암 스님 7년만에 봉암사에서 결제법어

94년 조계종 사태의 와중에서 홀연히 종정의 자리를 떠난 서암(西庵) 스님. 이때 20여년 조실로 머물렀던 조계종 특별수도도량인 봉암사 태고선원도 떠났다. 7년의 세월이 흘러 서암스님이 봉암사 법상에 다시 올랐다.



지난 9일, 신사년 하안거 결제법어를 하시기 위해서였다. 법어를 마치고는 다시 어디론가 떠나셨다. 봉암사의 한 스님은 “불일이 있으시며 시자와 함께 가셨다”고 전했다. 이 스님은 또 “법어를 글로 남기지 않았으며, 정진을 독려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서암스님이 결제 법어를 하게 된 것은 봉암사 대중들의 요청 때문. 봉암사에서는 서암스님이 상주하며 수행납자들을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암스님은 이를 완곡히 물리쳤다. 사실상 조실 추대를 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대신 결제와 해제 법어, 반철(결제와 해제 중간 때 소참법문(설법 및 그에 따르는 문답만)하기로 했다.

서암스님은 75년 봉암사 조실로 추대된 이후 94년 4월까지 봉암사에서 납자들을 지도하며 수행에 매진했다. 이후 서암스님은 봉화 무위정사에 머물고 있다. 가끔 불자들의 청을 받아 법문을 하기도 했지만, 주석처의 편액처럼 10평 남짓한 토굴에서 ‘무위’로 살고 계신다.

봉암사는 94년 서암 스님이 물러나 빈 조실자리를 97년 범룡스님이 맡았으나 1년반 남짓 소임을 보다가 연로해 사임했다. 그러다 지난 해 10월 진제스님을 조실로 모셨으나, 석달만에 떠나 선방의 구심점인 조실이 비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서암스님이 결제·해제·반철 법어를 하기로 했으니, 사실상 조실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형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김규석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소포: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7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선불교 조계종’ 세미나의 조계종 정체성 확립 기여

그 동안 한국불교는 근현대사에 대한 정리, 평가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세미나 준비팀에서 밝히고 있던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전개 과정 속에서 지난 일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이는 불교사 인식과 교단관의 미정립으로 이어져 정체성 확립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계종 기획실과 조계사가 공동

으로 주최해 다음 달 5일 여는 ‘조선불교 조계종과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체성 연구’ 세미나는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 가운데 하나인 조선불교 조계종 창립의 의의를 집중 조명,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불교 조계종의 창립은 종단 명칭에 조계종을 최초로 사용, 선종의 정통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조계종이란 명칭은 선종의 6조인 혜능스님이 설립하던 보림교(보림사(寶林古寺))가 있던 조계산에서 유래한다. 1941년 조선불교 조계종의 창립은 일제의 조선불교 말살 음모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불교계의 교단 건설 작업의 성과이다. 36년 일제는 모든 불교 재산을 병합·통합하기 위해 박문사를 한국불교총본산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

다. 이에 대응해 조선불교는 본사주지회를 열어 총본산 건립에 뜻을 모았다. 이의 실현은 태고사(현 조계사) 건립(38년 10월), 태고사법의 제정(41년 4월)을 통한 법령 정비, ‘조선불교 조계종’으로 교단 명칭 확정 등으로 나타났다. 종헌의 골격을 갖춘 태고사법은 16장 13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불교 조계종은 해방 이후 ‘조선불

교’로 개칭되었고, 1954년 다시 ‘조계종’으로 복귀하였다가 62년 통합종단 출범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불교의 현재 모습의 근거가 되는 파란만장했던 불교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 근·현대사 관심 높아질 듯

도솔암 삼사순례 및 방생법회 안내

한곳에서 방생도하고 삼사참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삼사 참배 코스〉

- 제 1 코스 : 도솔암 참배선원 선운사
- 제 2 코스 : 도솔암 선운사 내소사
- 제 3 코스 : 도솔암 선운사 개암사
- 제 4 코스 : 도솔암 선운사 내장사

- ※ 문화기행 : 고인돌, 미당 생가, 전봉준 생가
- 도솔암에는 성지순례 참배객을 위해 항상 무료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 도솔암에는 대형버스가 절입구까지 올라갑니다.
- 도솔암에는 계곡을 막은 5만평의 저수지 방생장소가 생겼습니다.
- 하루전에 전화예약주시면 1000명분의 공양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번지 도솔암
■ 전화 (063)564-2861, 561-0075 팩스 (063)561-4080

해동 제일 지장기도 성지 도솔암

